

제147호

발행일 : 서기 2020년 5월 25일
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상근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02435
홈페이지 : andongkimc.kr

코로나 바이러스19 전염병 슬기롭게 극복하자!



안동김씨대종회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안부인사 올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모두가 흰 마스크에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전염병과 경제난국에 걱정뿐이니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시련은 세월이 약이란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끝이 보이겠지요.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내어 봅시다.

2017년 대종회장직을 맡아 선조님께 고유를 하고 종사에 임한 지가 어제 같은데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종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기가 3년인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녹음으로 푸른 세상의 강인한 힘을 내다보며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또 하게 됩니다.

그동안을 뒤돌아보면 종친 간 화합을 종무에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대종회는 불협화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대소행사의 참여율은 대폭 개선되었고 종친들께서는 종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안동회관을 마련하고 안동지역 종친회의 큰 발전을 이루었음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원단 건립과 묘소정화 노후건물의 보수공사로 선조님에게 예를 다함은 당연한 도리였으며 그동안 저의 미흡한 점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았던 임원님들과 원로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헌성금을 답지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종친여러분과 소문중을 대표하여 성금을 쾌척 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고 안녕을 빌며 선조님들의 음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멀리신라 왕족이며 고려조에는 외손으로 빛

나는 가문이다. 중시조 충렬공에 변창하여 갑족의 위세를 갖추고 현세까지 수많은 인재 명현을 배출하고 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명문입니다.

현재 2015년 통계로 50대 성관 순위는 15위로 인구 50만명의 대가족입니다.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국난극복의 지혜와 슬기로운 난국을 헤쳐 나갈 유전자가 혈관을 흐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연임을 할 수 없는 사정 이지만 많은 종친들께서 연임 해 줄 것을 부탁 해와 동의하고 나니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대종회 임원님 그리고 많은 종친들께서 적극 협조 해 주시고 성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을 현양하고 문화를 지키며 역사를 발전시키는 종사의 큰일들은 끝이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며 대종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할 때입니다.

현재 대종회관 건물 리모델링진, 충렬공 묘지수호 사적비 건립 건 등. 안동김씨역사문화 조성 부지 공인취득 건. 안동재사의 관리와 관리인 문제 등의 과제가 앞에 있으며 인터넷족보의 수단 입보 및 오류교정 등이 있고 현재 50명이 넘는 대종회고문의 추천과 회비 책정 등 업무적인 사항들이 있으나 최대한의 이견을 줄여 화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안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종친님들과 대종회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임기 내내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5대 대종회장의 직을 잘 수행 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종친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30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錫漢

//공고//

안동김씨대종회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취소

2020년도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일자를 변경하여 개최 공고 하였으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최를 취소합니다.

의결사항은 회장단회의 유인물 동의로 결정한 사항을 정기총회에 원안 승인한 것으로 회장단의 동의로 결정 공고합니다.

◎ 회장단회의 결정 정기총회 승인요청 상정안건

1. 2019년도 수입·지출 결산보고 안
2. 2020년도 예산 안
3. 제25대 대종회장 선출(현 김석한 회장 유임)

2020년 4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

재53회 안동김씨대중회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며

안동김씨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상근 인사 올립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병의 만연으로 전 세계인의 400만 명이상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27만여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5월 중순 현재 10,850명에 사망자가 250명에 달하였습니다. 인류의 크나 큰 재앙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일상생활과 문화의 변혁으로 혼돈에 사로 잡혀 세상이 허황할 뿐입니다.

충렬공 후에 우리 종친들께서는 이 난관을 잘 대처하시어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지내시리라 사료됩니다.

대중회는 2·3·4월 행사를 모두 연기하고 전염병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 회장단회의를 유인물로 대체하여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 자료를 우편물로 발송 개인별 통화로 약식 개최하여 상정안건을 전원 찬성 동의로 승인받아 정기총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승인된 중요안건은 2019년 회계결산·2020년 예산안·제25대 대중회장 선임 건이었으며 대중회장은 24대 현 석한 회장님의 유임을 어렵게 얻어내어 정가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부의 하였습니다.

5월9일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 시제와 상계선조님 추원단 참배는 취소하였고, 충렬공 시제일 11월23일(월)11:00 (음 10월9일)에 충렬공고비위 향사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정기총회는 완전취소하여 개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국가재난을 당하여 정기총회 개최를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종사에는 지장이 없이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각 파종회 및 지역종친회, 대소문중에도 별 탈 없음은 선조님의 음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정기총회가 취소되어 제25대 대회장님의 취임식을 하지 못하여 죄송스럽습니다. 회장님은 학교재단 운영 및 사업 경영과 여러 사회 활동 등으로 너무 바빠서 대중회장의 연임을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중회장 추천자도 없어 걱정을 하였고 대중회 발전을 위한 현 회장 연임을 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대중회장 연임을 허락 해 주신데 대하여 전 종친은 환영하며 조상을 위하고 종친의 화합을 위하고 대중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난국입니다. 종친여러분께서는 코로나전염병 방지에 적극 호응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언 드리는 것은 대중회보 발행의 원고의 수집입니다. 파종회 및 소문중 각 종친들의 기사 등을 보내 주시어 회보가 알찬 내용으로 편집되어 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 인터넷족보 수정 및 수단작업이 필요하신 분은 소속 파종회를 통하여 접수하시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중회홈페이지에는 인터넷족보를 비롯하여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접속하시어 정보를 공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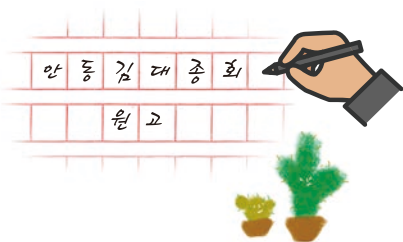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다시 한 번 종친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항상 대중회 발전에 협력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동김씨대중회 회원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갑시다.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30일

- 안동김씨대중회 사무총장 상근(在) 拜上 -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 출 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02월 26일 ~ 2020년 5월 25일 기준)

◎ 임원회비 (부회장)

· 20만원 : (密)재형 (都)재수 (都·首)정 (翼)재남 (書)덕영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副)태형 (都)시대 · 대회 · 운중 (提)규철 · 태시 · 정웅 · 평웅
(按)봉진 (翼)태철 · 영화 · 근식 · 재화 (書)돈영 · 규은

◎ 통상회비(일반)

· 5만원 : (郡)재근 (提)대웅 (翼)기식
· 3만원 : (按)영희 · 태언 (翼)완식 · 규희
· 2만원 : (郡)호영 (文)사용 (按)태길 (翼)태위 (?)원희

◎ 찬조금

· 20만원 : (提)태완 · 10만원 : (翼)동진 (?)관식

◎ 평생회비

· 20만원 : (翼)준회-김포 · 천회-포천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2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제24대 대종회장 재임 업무현황

◆ 2017년 ◆

인사업무

- 대종회장 이취임 (22.23대 회장 鳳會(都). 24대 회장 錫漢(翼)
- 경리부장 손운순 퇴직 사무부총장 泰榮(郡)임명 6/30

종회재산 관리업무

대종회관 유지관리

- 사무실내 역대회장 초상화 아크릴판으로 교체 설치
- 대종회관 불법건축물 합법 등재완료 용역의뢰회사 (주)트렌스아시아건축 12/7 충렬공 고비위 묘소, 및 위토 건물 유지관리
- 음수재 및 영정각 기와 지진으로 손상된 부분 수리완료
- 충렬공고비 묘소 사초 및 묘역정화 공사 완료6/16
- 회곡 충렬공 유허비각 기둥 보수공사 및 바닥 석재시공 완료 9/30
- 충렬공고비 묘소 사초 및 묘역정화공사 완공 표지석 설치완료 11/2

행사 및 회의.

- 회장단회의(2/23) 이사회회의(3/9) 정기총회(3/23) 개최
- 충렬공김방경탄신 800주년 기념비 제막식 거행 3/11
- 숭의전 춘계대제 (4/2) 추계대제 참석(10/22)
- 대종회장 이취임 고유행사 (장소 충렬공고비위 묘소 4/24(월))
- 회장단회의 개최 (장소 광장동 인성하이텍 빌딩 7층)5/1(월)
- 김신장군 1주기추모식 참석(용산 전쟁기념관)5/19
- 충렬공고비 묘소 개사초 및 묘역정화공사 고유행사 5/22
- 충렬공고비 묘소 사초 및 묘역정화공사 완공 위안제 봉행 6/26
- 충무공김시민장군 탄신463주년 현다례 행사참석 (천안박물관)9/23
- 회장단회의 개최. 장소 대종회관 (10/11)
- 충렬공 상계6선조 제향.충렬공고비위 향사 봉향 (외국인 참여자 포함 약500명 참석)11/26

선조님 현양 홍보

- 대종회보 발간 및 발송(16면 년4회 회당 3,000부 발행)

◆ 2018년 ◆

- 김태운 상소건 대종회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01/10
- 2018년도 안동김씨대종회 회장단회의 개최 02/27
- 2018年 安東金氏大宗會 理事會議 개최 03/08
- 安東金氏大宗會 第51回 定期總會 盛了 03/22
- 2018 崇義殿 春季大祭 奉行 參祀 04/01
- 安東金氏大宗會 發展을 爲한 任員團 워크숍 開催 04/27
- 安東會館 買入 契約締結 (매입가 12억500만원 대지 397m2(약 120평) 건평 646m2 약195평) 일반철골구조 3층 월임대수익 약 400만원)04/11
- 忠烈公墓所 및 上洛臺 표지판 설치 05/20
- 大宗會館 屋上 방수 페인트공사 06/7-30
- 安東金氏會館 開館式 盛了 06/27
- 홈페이지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09/13
-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참석 10/05
- 경진보 대종회 홈페이지 입력 완료. 열람가능 10/06

- 2018 崇義殿 秋季大祭 奉行 參祀 10/07
- 2018 安東金氏 한마음 體育大會 開催 10/13
- 2018 충렬공고비위 세일사 분정 및 제례 시연행사 11/09
- 2018.戊戌年 忠烈公考妣位 歲一祀 奉行 11/16

선조님 현양 홍보

- 대종회보 발간 및 발송(16면 년4회 회당 3,000부 발행)

◆ 2019년 ◆

1. 충렬공 상계선조님 추원단 건립
 - 1) 장소 :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산154번지
 - 2) 부지조성 : 정상 기존경작지 약700평 평토 작업 및 잔디식재 및 조립공사
 - 3) 추원단 : 조형물은 뿌리공원 안동김씨조형물과 동일하게 조각하고 추원단, 제자는 양제 김재준(서) 글씨이며 바닥은 석재로 깔고 정 북에서 남향으로 근수하였음. .
 - 4) 개막식 행사 : 2019. 6. 3. 오전11:00 ~ 오후 13:30 안동김씨선조 추원단 개막식과 고유행사 거행 약250명 참석 성료.
2.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 시향제 봉향

매년 충렬공시제 후 오후에 제향하던 충렬공 배위 세일사를 금년부터는 봄에 제향하기로 하여 금년에는 추원단 개막식 후 설단 묘에서 봉향하였음.
3. 회의 개최(4회)
 - 1) 회장단회의 2019.2.28. 대종회 회의실
 - 2) 임원회의 2019.3.6. 광진구 한강호텔
 - 3) 정기총회 2019.3.21.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 4) 회장단회의 2019.4.19. 광진구 인성하이텍빌딩
 - 5) 회장단회의 2019.9.25. 대종회 회의실
4. 종회재산 관리업무(유지보수공사)
 - 1) 능동재사 보수공사 완료
 - ① 음수재 노후된 기와지붕을 동(銅)기와로 교체.
 - ② 바침 기둥 4개 제거.
 - ③ 대문 교체 및 대문 지붕기와 보수공사
 - ④ 담장보수 및 기와 교체시공.
 - ⑤ 영정각 대문 보수 및 지붕 기와 보수공사.
 - ⑥ 영정각 입구 안내 표지판 설치.
 - 2) 관리사 지붕 보수공사 완료 석가래 일부 교체 및 기와보수 공사.
 - 3) 묘소진입 돌계단 손잡이 스텐봉 설치
 - 4) 구송리 신도비각 단청 및 지붕 동(銅)기와로 교체 시공
 - 5) 회곡리 유허비각 담장 및 상락재 담장 보수 및 기와 교체 시공

기타행사

- 2019. 4. 8. 2019숭의전 춘계대제 봉행
- 2019. 6. 3. 안동김씨 선조 추원단 건립개막식 고유제 봉행
- 2019. 6. 5.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세일사봉향
- 2019 .9.28. 제11회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개막
- 2019.10.9. 2019숭의전 추계대제 봉행
- 2019.10.31 2019충렬공 세일사 헌관 및 제집사 분정 및 제례시연.
- 2019.11. 8. 2019 충렬공 세일사 봉향

선조님 현양 홍보

- 대종회보 발간 및 발송(16면 년4회 회당 3,000부 발행)

조선의 청백리 안동김씨 편

— 조성린/조은출판사/2012 —

1. 김연수(金延壽) : ? ~ 중종 10년(1515)

문온공(文溫公) 김구용(金九容)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김맹헌(金孟獻)이고, 아버지는 의영고직장(直長) 김자정(金自靖)이며, 어머니는 계유정난 시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우의정 김종서(金宗瑞)의 딸이다. 본관은 안주[安州, 안동(安東)의 오기로 저자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이고, 자(字)는 이강(而康)이다.

성종 11년(1480)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성종 14년(1483) 춘당대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연산군 3년(1497) 성균관전적을 지냈고 그 후 청풍군수로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이 전부터 매년 5-6월에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의 우상을 모시고 제사를 크게 지내는 것을 보고 남녀 무당과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불태워 버렸더니 그 후부터는 요사스러운 제사가 없어졌다.

중종 2년(1507) 강릉부사로 근무중 강원도도사(都事) 유부(柳溥)와 말다툼을 한 후 벼슬을 버리고 떠날 때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만류하였지만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후에 백성들이 유부가 지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태수를 내치고 어찌 우리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후 내섬시정·종성부사·충청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성품이 매우 청백하고 굳은 절개가 있었으며 간소하였다. 일찍이 장흥부사로 부임하는 길에 공주에서 잘 때 목사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방문하였는데 이튿날 모두 반환하니 목사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내 지켜나가는 굳은 절개를 가졌다고 일컬었는데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2. 김무(金弼) : 세종 23년(1441) ~ 중종 9년(1514)



익원공(翼元公)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승(金陞)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김종숙(金宗淑)이며, 어머니는 사복시정(司僕寺正) 이양직(李良直)의 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字)는 미보(美甫)이며, 사육신 모의를 고변한 김질의 동생이다. 세조 14년(1468) 경상도경차관·사헌부집의를 거쳐 성종 5년(1474) 국장수리도감의 낭청을 지냈으며, 이듬해에는 궁궐수리도감 낭청을 지냈다. 1477년 춘천부사, 성종 14년(1483) 예빈시부정 등을 거쳐 성종 21년(1490)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우부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공조참의를 거쳐 형조참의를 지내고 1493년 강원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연산군 1년(1495) 동지중추부사로 천추절을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에 다녀왔다. 중종 1년(1506) 중종반정에 공이 있다고 하여 정국공신 풍양군에 봉해졌고, 중종 36년(1541)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3. 김수(金睟) : 명종 2년(1547) ~ 광해군 7년(1615)



서운관정공(書雲觀正公) 김수(金綏)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김노(金魯)이고, 아버지는 사재감정(司宰監正) 김홍도(金弘度)이며, 어머니는 이계백(李繼伯)의 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字)는 자양(子昂)이고, 호는 몽촌(夢村)이다.

선조 즉위년(1567)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선조 6년(157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후 예문관검열을 지냈고, 이듬해 홍문관 정자·저작을 거쳐 예문관 봉교가 되었다가 사헌부 감찰로 승진하였다. 이어 정언·수찬을 지내고 교검으로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갔다 이듬해 돌아와서 사헌부지평·성균관직강 등을 역임하고 홍문관 교리가 되었을 때 왕명으로 『십구사략(十九事略)』을 개수(改修)하고 주(註)를 붙였다. 1582년 헌납·이조좌랑 등을 거쳐 선조 16년(1583) 오랑캐가 침입해 경원부(慶源府)가 함락되자 이조정랑으로 도순찰사 정언신의 종사관이 되어 적을 격퇴하였다. 같은 해 평안도 순안(巡按)어사가 되었고 이듬해 평안도에서 병이 심해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애석한 일이다. 경의(京醫)에게 약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 구료하게 하라.”하였다. 그 후 직제학을 지내고 1586년 승지 등을 거쳐 1587년 평안도관찰사로 갔다가 1589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1590년 부제학이 되었고, 이어 대사헌·병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1591년 다시 경상우감사(慶尙右監司)가 되었는데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감영(監營)이 있는 진주를 버리고 거창으로 도망가면서 각 고을에 격문을 돌려 백성들에게 적을 피하라고 통고하니 도내가 텅 비어 왜적을 방어할 수 없었다.

또한 전라감사 이광(李洸)과 충청감사 윤국형이 근왕병(勤王兵)을 일으키자 그는 겨우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참가하였다. 그러나 근왕병이 용인에서 패하자 경상우도로 되돌아가 영남초유사(招諭使) 김성일로부터 패전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또한 당시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곽재우와 불화가 심해 김성일의 중재로 무마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로 지방 사람들로 부터 업무 처리 하는 것이 조급하고 각박할 뿐만 아니라 왜적과 싸우지 않고 적을 피해 도망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선조 25년(1592) 8월 한성부판윤이 되었고 3도순찰사로 제수되었으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1593년 중국 사신의 접반사가 되었으며 사은사 부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우참찬이 되었다. 이어 호조판서가 되어 군량미 조달에 고생하였으며 다시 동지중추부사로 명나라 사신 및 장수의 접반사로 활동하였다. 선조 29년(1596) 호조판서로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명군(明軍)의 군량을 충당하는데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그 뒤 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600년 또 호조판서가 되고 1604년 염근리에 선정되었으며 광해군 즉위년(1608) 다시 호조판서가 되고 다음해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는데 광해군 5년(1613) 계축옥사 때 손자 김비(金祕)가 무고로 옥

사하자 그도 대간들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고 2년 후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항의 문인으로 백사(白沙) 이항복이 그의 죽음을 듣고 나라의 충신을 잃었다고 한탄했다고 한 반면 유학(幼學) 신급의 상소 속에 조정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인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저서로 『몽촌집夢村集』이 있으며 시호는 소의(昭懿)이다.

4. 김시양(金時讓) : 선조 14년(1581)~인조 21년(1643)



제학공(提學公) 김익달(金益達)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석(金錫)이고, 아버지는 비안현감 김인갑(金仁甲)이며, 어머니는 서윤(庶尹) 홍이곤(洪以坤)의 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字)는 자중(子仲)이며, 호는 하담(荷潭)·인재(仁齋)·호옹(浩翁)인데 처음 이름은 김시언(金時言)이다. 선조 38년(1605)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가 되었다가 1607년 주서(注書)가 되고 광해군 1년(1609) 예조좌랑으로 지제교(知製敎)를 겸했으며, 1610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명나라에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만주에 자리 잡은 여진족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으므로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자면 요동을 통해서 가는 길은 믿을 수 없으니 바닷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후일 청나라가 강대해지는데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건의한 것을 보면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광해군 3년(1611) 전라도도사(都事)로 재직하면서 향시에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처럼 한다.(신시군여구수臣視君如仇讐)〉는 글로 시험 문제를 내었는데 그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문제를 삼아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616년 영해(寧海)로 유배지가 바뀌었다.

인조반정(1623년) 후 풀려나 예조정랑·병조정랑·수찬(修撰)·교리(校理)를 역임하고 의주부윤에 제수되었으나 반대가 있어 취소되었고 이듬해 이괄의 난 때는 도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여 그 공으로 다 큰 말(馬) 1필을 하사받았다.

다시 헌납이 되고 교리·부수찬 등을 지냈으며 인조 3년(1625) 이조좌랑·이조정랑을 지내고 응교(應敎)가 되어 문학을 겸했다. 이듬해 인현왕후의 산릉(山陵) 조성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는데 경상좌도와 우도의 전결(田結) 등급이 차이가 많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보고하여 실제 등급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였다. 1628년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인조 9년(1631년) 병조판서가 되었고 3개월 후 의정부의 의논에 따라 8도 도원수로 임명되어 4도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였으며, 인조 11년(1633) 형조판서로 4도체찰사를 겸했다. 이때 도원수로 의주에 있으면서 후금(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머물게 하고 부원수 정충신 등과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새로 일어나는 후금과 전쟁을 한다면 질 것이 뻔하니 후금의 요구가 많다고 해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며 국교를 단절하려는 처사는 위험하다고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로 인해 하옥되었다가 정충신은 공신이고 병(病)이 있다고 방면되고 김시양은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호조판서·지중추부사

에 임명되었다. 그 뒤 한성판윤을 거쳐 호조판서 겸 동지춘추·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이 되었다가 9월에 다시 도원수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강화유수가 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인조 14년(1636년) 벼슬을 떠나기로 하고 상소하기를 “현재 뇌물과 청탁이 크게 행해져 법령이 시행되지 않으며, 탐욕스런 풍조가 점점 성해져 사치가 끝이 없고, 방납의 피해가 심하며 사천(私賤), 양처(良妻)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 몇 가지 폐단은 모두 오늘날에 있어 병통의 근원입니다. 만일 엄하게 금단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1636년 청백리에 뽑혀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나 눈병으로 사직하고 향리인 충주로 내려갔다. 1641년 선조실록을 개수할 때 다시 판중추부사 겸 춘추관사를 제수하자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하지않자 여주까지 왔다가 병이 심하여 충주로 되돌아갔다. 전적(典籍)과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회령의 향사(鄉祠)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하담집, 부계기문(攄溪記聞) 등이 있고 숙종 17년(1691) 충익(忠翼)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각 고을을 순행하는데 어떤 고을 수령이 기한을 어겨 공무를 그르치게 한 일이 있었다. 그 수령을 향청에 잡아다 놓고 형틀에 묶은 다음 불기를 꺼서 곤장을 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뛰어 들어오더니 몸으로 불기 짝을 감쌌다. 그는 다름 아닌 김시양의 사위 이도장이었고 묶여있는 사람은 이도장의 숙부였다. 그러자 김시양은 “내 어찌 사위 하나 때문에 국법을 어기랴” 하고 나졸을 시켜 사위를 끌어내게 한 다음 그대로 곤장을 쳤다.〈동평위 공사견문록〉

5. 김두남(金斗南) : 효종 8년(1657) ~ 숙종 41년(1715)



군사공(郡事公) 김칠양(金七陽)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풍덕도호부사 김인량(金寅亮)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김지(金址)이며, 어머니는 수군절도사 민선(閔善)의 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字)는 일경(一卿)이며, 호는 탁청헌(濯淸軒)이다.

숙종 7년(1681) 생원시에 합격하고 숙종 13년(1687) 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후 승정원가주서가 되었고, 이듬해 직장(直長)을 지냈으며, 숙종 15년(1689)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근무할 때 인현왕후를 폐하려고 하자 오두인, 박태보, 이세화 등 80여명의 관리들과 함께 반대 상소를 올렸다. 이 일로 숙종의 노여움을 받아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1694년 호조좌랑 등을 지내고 1696년 사간원 정언·헌납 등을 거친 뒤 이듬해 병조좌랑 등을 거쳐 숙종 28년(1702) 울산부사를 지내고, 그해 12월 인동부사에 부임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은 토호세력을 원칙대로 대하여 그때까지 체납되었던 관곡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또 관곡 중 토호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였으며 청렴한 아전을 충원하여 정치가 맑아져 백성들이 청덕(淸

德)선정비를 세웠다.

이듬해 7월 고종사촌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자 상피(相避) 관계로 자리를 옮겼다. 1704년 예빈시정, 이듬해 중부시정 등을, 1708년에는 박천군수 등을 지내고 숙종 36년(1710) 양양부사로 부임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관내에 큰불이 나서 수백호가 불타고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관곡을 풀어 이재민 구제에 온 정력을 기울이고 굶

주리기를 백성들과 같이하였다. 이 때 김두남을 사간원으로 전임시키려 하자 고을 백성들이 어질고 청렴한 사또를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임금이 그대로 유임시켰다. 그 뒤 헌납·동지겸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오고 숙종 41년(1715) 안주목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고 경종 때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기사제공: 문온공파종회 회장 김윤만—

문온공파 별제공종친회 선대 묘소 사초(莎草) · 이장(移葬)기

문온공파종회와 별제공종친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양리 부사공 명리(明理) 할아버님 묘역 명의 이전과 함께 직제학공 맹헌(孟獻)·침정공 자양(自壤) 할아버님 묘역 사초가 2019년 4월 동시에 이루어져 본 대중회보를 통하여 게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별제공종친회(회장: 계만(桂萬))는 동년 10월 정기총회에서 1차로 직제학공 맹헌(孟獻)·침정공 자양(自壤) 할아버님 묘역 사초가 누가 보더라도 자랑스러운 정도로 이루어졌으니 2020년도에는 2차로 동원상하묘(同原上下墓) 형태로 모셔져 있는 병사공 윤종(胤宗)·별제공 진기(震紀)·가신(可臣) 할아버님 묘역 사초와 창수면 주원리 산133-5 임봉동 선영에 모셔져 있는 교리공 환(煥) 할아버님 묘소를 창수면 가양리 산240 메치골 선영으로 이장하고, 3차는 2021년도에 메치골 선영에 동원이강묘(同原異岡墓) 형태로 모셔져 있는 청도공 예생(禮生) 할아버님 묘역을 사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생(禮生) 할아버님은 선조 35년(1602) 형조판서 벽오 이시발(李時發) 선생이 지은 충렬공 묘지에 ‘묘는 예안현 서쪽 능동에 있으며, 신도비는 옛날 고려왕이 세운 것으로 세월이 오래되어 실장할 수 없으므로 성손 예생(禮生)이 고을(예안) 현감으로 와서 비석을 세워 표지를 하였더니 이제 이 비석까지 부러져 버렸으니 아! 후세의 사람들이 어찌 공의 묘소인 줄 알 수 있을까?’하고 탄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부러진 비석을 세운 성손 예생(禮生)이 바로 청도공 예생(禮生) 할아버님이다.

이러한 후손들의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병사공 윤종(胤宗) 상하분, 별제공 진기(震紀) 쌍분, 가신(可臣) 단분, 교리공 환(煥) 단분 등 총 6기를 사초하고 이장하는데 3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호석을 제작하고, 잔디심기, 잡목제거, 도로정비사업을 하였다.



▲(앞)김진기, (뒤)풍산김씨. 김윤중 묘

병사공 윤종(胤宗) 할아버님 구(舊) 묘표 ‘嘉善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公之墓 貞夫人豐山金氏之墓’와 함께 옆에 새 묘표 ‘安東金公胤宗之墓(上部) 配貞夫人豐山金氏之墓(下部)’가 설치되었고, 별제공 진기(震紀) 할아버님은 구(舊) 묘표를 그대로 설치하였으며, 가

신(可臣) 할아버님은 묘표가 상석에 음각해 있었는데 새 묘표 ‘安東金公可臣, 配昌寧成氏之墓’라고 오석에 음각하여 새로 세웠다.

이번에 이장하게 된 교리공 환(煥) 할아버님은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금석집첩(金石集帖)』에 250여년 전 묘갈 탁본이 있는데 바로 그 묘갈을 옮기게 되어서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본시 문화재란 본래 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인데 이번에 교리공 환(煥) 할아버님 묘소는 주원리 선영 입구가 공단부지 개발과 타인 소유로 이전되면서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한 이른바 맹지가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장을 결심하게 되었다.



▲교리공 김환 이장묘

김환[金煥, 인조 15년(1637)~숙종 3년(1677)], 자(字) 연명(然明), 증조는 도사 김대섭(金大涉), 조부는 철원부사 김확(金獲), 아버지는 김정지(金鼎之), 어머니는 이지광(李志宏)의 따님 여주이씨, 배위는 도사 신최(申最)의 따님 평산신씨이다. 현종 1년(1660) 진사가 되고, 현종 3년(1662) 증광시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이 홍문관교리에 이르렀으나 안타깝게도 향년 41세라는 이른 나이에 별세하셨다. 반면에 평산신씨 할머니는 84세의 수(壽)를 누리셨으니 교리공보다 43세를 더 사시다가 교리공 우측에 묻히신 것이다.

참고로 평산신씨 할머니의 친정아버지 도사 신최(申最)공은 선조의 부마 동양위 신익성(申翊聖, 정숙옹주)의 아들이니 선조 임금의 외손이고, 영의정과 문형(文衡)을 지낸 조선조 한문학 4대가의 한사람인 상촌 신흠(申欽) 선생의 손자이다.《평산신씨대동보 권2 p592/1989 복간》 그리고 서울 종로구 수하동에 있었던 안동김씨 문온공파 종택의 소유권이 별제공 김진기(金震紀)-도사공 김대섭(金大涉)-(사위) 이조판서 지봉 이수광(李睟光)-이조참판 동주 이민구(李敏求)-(사위) 신필화(申弼華)로 이어지는데 그 신필화의 넷째 숙부가 바로 신최(申最)공이다.

환(煥) 할아버님에 대한 또 하나의 관심사는 2001년 현 가양리 선영으로 이장한 조부 철원부사공 확(獲) 할아버님 이장 시 원삼(圓衫)·장옷·심의(深衣)·철릭(帖裏)·전복(戰服)·단령(團領) 등 의복과 신발, 관곽 등 무려 112건에 154점의 부장품이 무더기로 쏟아

져 나오는 뜻밖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인부들에 의해 그 중요한 의복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경기도박물관에 위탁 보관된 경향이 있다. 다행히 경기도박물관에서 특수세탁과 세심한 복원작업을 거친 끝에 지금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혹시 부장품 유물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미리 경기도박물관 학예실에 자문을 구하니 다행히 참석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4월 1일(수) 08:40 창수면사무소에서 영환(안사연 회장), 태영(대중회 사무부총장), 윤만(문온공파 회장), 천만(문온공파 홍보이사)이 학예연구사 이영은 박사 외 3인의 일행을 영접하여 메치골 교리공 묘소에 도착하였다. 묘소에는 별제공종친회 유만 고문, 계만 회장, 광열 총무이사 등 여러분의 종친들이 인부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09:10분 파묘를 시작하여 20분이 경과되자 평산신씨 할머니 회곽과 함께 회곽관에 음각하고 솜으로 ‘淑人平山申氏祔右’라고 쓴 묘지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할머니는 ‘祔左’인데 반하여 여기는 어찌하여 ‘祔右’를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은 후일의 숙제로 남겨 놓았다. 그러나 좌측의 교리공 회곽에는 묘지가 없다. 회곽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였던지 포크레인 블랙카를 이용해서야 겨우 깨뜨릴 수 있었다. 10:30분 곁관과 홍대를 거둬내자 흰색 글씨로 ‘通訓大夫行弘文館~~~’하고 아래 부분을 읽을 수 없었다. 파묘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학예사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묘지와 회곽, 곁관의 가로·세로·높이·두께 등을 능란한 솜씨로 재면서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1:20분 교리공 관을 밖으로 모셔졌다. 다시 똑같은 진행과정을 거쳐 평산신씨 할머니 관이 들어났는데 할머니 관 위에는 ‘淑人平山申氏之柩’라고 쓴 흰색 글씨가 뚜렷하여 판독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속관 옆

판에는 명주천에 나무테두리를 한 다음 주사(朱砂)로 운양문(雲樣紋, 구름무늬)과 아자문(亞字門)을 그려 넣었는데 오랜 세월 땅속에서 곁관까지 판박이가 되어 붙어 있었다. 12:20분 할머니 관까지 밖으로 모셨는데 비교해 보니 할머니관이 조금 작아보였다. 점심식사를 하고 가양리 메치골에 13:30분에 도착하였다. 현장에는 어제 이미 묘역의 평토작업은 마쳤고 묘갈, 상석, 문석인, 망주석 등 석물도 미리 와 있었다. 이제 학예사들과 함께 부장품 유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계만 회장은 “원래 계획은 관을 열지 않고 있는 관 그대로를 안장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경기도 박물관 학예사들도 “관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후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철원부사공 할아버지의 예도 있고 하여 두 분의 관을 열었으나 그 때 당시로는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명주가 겹겹이 쌓인 채 누워계시는 시신 외에는 부장품이 보이질 않는다. 명주를 뒤적여 보았으나 장갑에 천이 묻어 날 뿐 더이상 점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하여 서둘러 관을 닫았다. 할머니 관도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부장품 유물이라도 나왔더라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소 위안을 받았으련만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었다. 할아버님, 할머니님! 가양리 메치골에서 좌청룡, 우백호가 분명한 가장 좋은 명당에 새로 마련한 유택이오니 편히 영면하시고 후손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며 학예사들과 함께 확(獲) 할아버님 그리고 병사공 윤종(胤宗) 할아버님 묘소로 각각 발길을 돌렸다. 이 지면을 통하여 문온공파 별제공종친회 종친들의 숭모경조(崇慕敬祖)하는 마음에 경의를 표한다.

—기사제공: 문온공파종회 회장 김윤만—

안동김씨안렴사공파수도권총회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는 2020년 제13차 정기총회를 코로나19로 연기 해 오다가 종회의 중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코로나19

의 안정세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가운데 2020년 5월 9일 수도권총회 사무실에서 많은 종인들이 참석 한 가운데 재난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정기총회를 무사히 개최 하였다.

2020년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실적 승인 및 2020년 사업계획 승인,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임원선출,

정관 일부 개정 등을 심의 의결 승인을 했다. 임원선출에서는 2020년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6대 회장에 김 태성 종친을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되어 3년간 종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일부 임원은 유임 및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 되었다. 또한 정관 일부개정을 통해 정관 룰에 의한 종인들이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후 그동안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를 이끌어 오신 형남 5대 회장의 이임사와 태성 6대 신임 회장의 취임사로 정기총회를 마무리 했다. 이어 2부 식당으로 이동 해 식사를 하며 건배사를 통해 종인간 담소를 나누는 화합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중회, 안렴사파종회, 문영공파종회, 종회 회원들의 격려와 찬조가 있었다.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사무국장 김 봉진, 사진 김 순영〉

김석한 공주시 명예시장, 시에 핸드크림 1천600개 손소독제 300개 기탁



김석한 공주시 명예시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 가 많은 공주시 직원들을 위해 핸드크림 1천600개 손소독제 300개(5,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김 명예시장은 “공주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하지 않은 것은 공주시의 적극적인 방역과 예방활동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위생수칙이 강조되면서 손 씻기가 생활화된 요즘 손 건조 함이 심해질 것으로 사료돼 손 건강을 위해 핸드크림을 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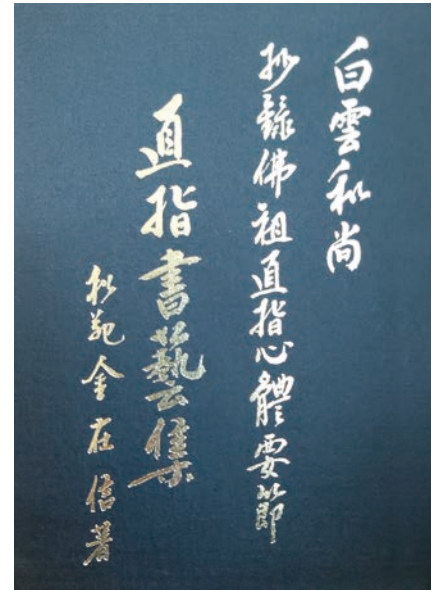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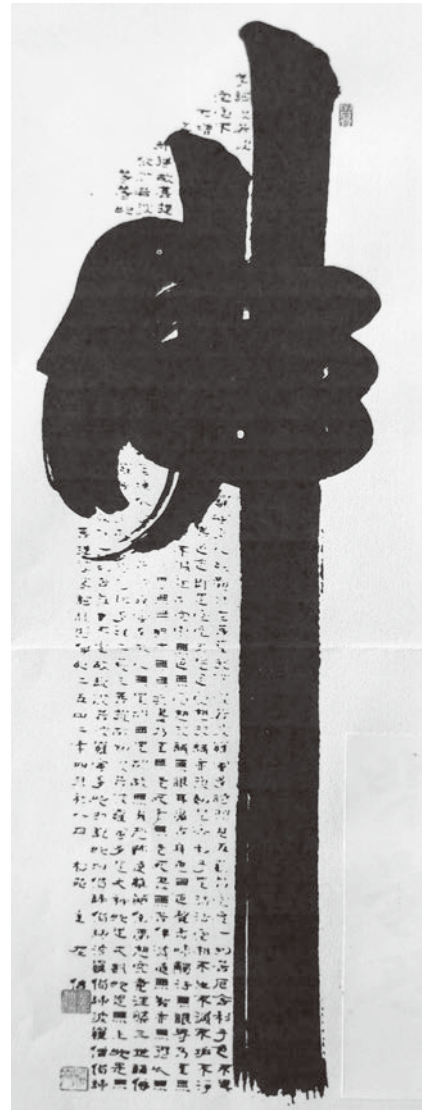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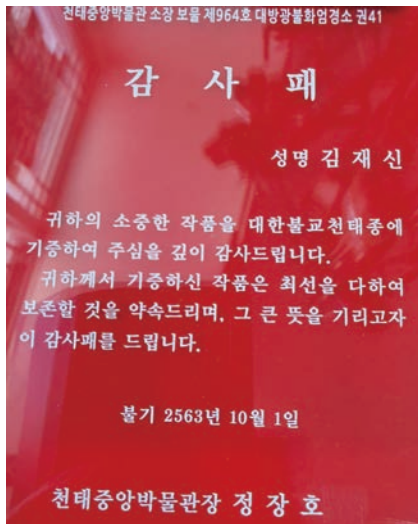
시는 핸드크림 1천600개를 본청 및 직속기관, 읍, 면, 동에 배부해 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주시 의료기관 및 노인정 관공서 등에 손소독제 300개를 공주보건소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초대 공주시 명예시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유구읍 탑곡리 출신의 출향인사로 (주)인성하이텍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 시 1억 원 상당의 물품과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물품 손소독제 300개(300만원 상당)를 기탁한 바 있다.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서예작가 송원(松苑) 김재신(金在信, 군사공파)님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 작품 박물관 기증

‘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작품 설명



기증한 직지 작품은 흰천으로 높이가 2,200mm 넓이 450mm로 번역문과 원문해설 자료는 예서체로 작성하고 인도의 과거칠불(過去七佛)과 그 후 28조사(祖師) 부처님들과 중국의 시조 보제 달마(菩提達磨)스님으로 시작하여 130조사(祖師)의 법어와 양보지선사대승 찬송 십수 지송화상(誌公和尚)의 14과송(科頌) 신라대령선사법어 1수 백운화상의 선도문 1수 석가모니불의 법어 2수를 서예작품으로 제작 모두 204수의 대작을 5개월여에 걸쳐 완성 낙관을 찍었습니다. 이 작품을 2019년 5월 2일에 충청북도 단양 구인사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佛字3000佛은 20호지 작품지에 썼으며 규격은 137×37 규모이며 제작 기간은 5년여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이 작품은 2019년 5월 4일날 인천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사찰 - 인천구양사 주지 능화 김중형스님)에 기증하였습니다.

천태중앙박물관 문예향전 개막...“전통문화 잇는다”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의 맥과 혼을 잇는 제4회 문예향전이 전시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천태종과 (사)문화예술의 향기가 주최하는 ‘제4회 문예향전’은 지난달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불교미술은 그 자체로 예술의 영역과 종교의 성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한 점 한 점이 그대로 무진 설법을 품은 경전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신진환,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호 백모필장 전상규 씨 등 작가 37명의 다양한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태종과 문예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2차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정태수 작가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으며, 한문수 문예향 회장은 천태종복지재단에 쌀을 후원했습니다.

인천 범패민속문화박물관

인천 범패민속문화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범패와작법무에 관련된 유물, 국내외 불교의식법구 및 민화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소장유물로는 불교의식과 관련한 악기 100여점과 의상 50여점, 장엄유물 40여점, 전적 250여점, 사진자료 250여점 등 총 800여 가지의 유물 등이 있다. 또한 전통민속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람객에게 전통 불교문화와 민속문화의 우수성과 위상을 알리고자 한다.

● 제 1 전시실 (1F)

제 1전시실은 범패와작법무 관련 법구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영산재 사진 자료, 불화, 고서적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제 2 전시실 (2F)

제 2 전시실은 범패와작법무에서 사용된 물품과 근현대의 화폐나 인장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실을 비롯한 법당구조로 되어 있어 범패의식의 봉행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범패민속문화박물관 교육관 (교육동 2F)

범패민속문화박물관 교육관은 성인·청소년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교육관에서는 범패소리·무용 배워보기, 법사물을 연주하기, 민화 원목상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70번길 11-13
범패민속문화박물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이름,

남당포 전투에서 순절한 김홍업 · 김서봉 부자

강진의 남당포(南塘浦)는 조선시대 제주로 가는 선척이 순풍을 기다리는 장소이고, 병영의 군량미인 세곡이 강진만을 통해 들어오는 비축기지이고, 각종 상선이 청자와 질그릇을 싣고 제주뱃길과 목포 등 연안의 다양한 항로를 이용하는 대규모로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해왔던 대표적인 외항이었다.



▲남당포는 지금의 남포마을 앞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5년 뒤인 1597년 일본은 명나라와의 강화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유재란을 일으켜 호남을 향하여 공격해 왔다. 향촌에서는 사족들을 중심으로 많은 향보의병이 결성되어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순절하면서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왜군이 침입하자, 대부분의 유력 사족들은 의병을 모아 왜군에 대항하여 사투를 전개하였다. 안동김씨 김홍업 가문이 중심이 된 남당포전투, 파주염씨 인사들의 구강포전투, 전몽성 · 김덕란을 중심으로 한 밤재전투, 윤륜 · 윤신 등 해남윤씨를 중심으로 한 병치전투, 윤현 · 윤검의 석대들 전투, 경주김씨 김응원 · 김응규의 도고동 전투 등이 정유재란시 강진지역의 대표적 전적지이다. 1597년(정유년) 10월 11일, 고을의 심장부인 강진현 동헌이 자리 잡고 있는 강진만 앞바다에 왜군들이 상륙을 시도하려 하자 관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는다. 이때 외적을 저지하기 위해 군기시직장 김홍업(金興業)은 강진현성(縣城)의 관병과 가솔들을 포함한 장정 1백여 명을 이끌고 남당포 해안으로 달려가 왜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으나 끝내 전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김서봉(金瑞鳳)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그길로 현장으로 쫓아가 역시 격전 끝에 중과부적으로 전사하여 부자가 같은 날 순절하였다.

다행이 이들 부자의 저지로 왜적들은 강진현성 점령을 포기하고 남당포를 지나 탐진강 어구인 군동면 금강리(김홍업의 자택) 앞 해변을 따라 장흥읍성 방향인 장흥 석대들로 들어가며 남당포-석대들-도고동으로 연이어 전투가 벌어졌다.



▲강진 군동면 앞 탐진강

김홍업의 처조카인 윤현(尹僎) · 윤검(尹儉) 형제는 달마산과 병치재에서 활약하고 석대싸움에 이르기까지 왜군이 출몰하는 곳을 이동해가며 추격전을 펼치다 석대들 전투에서 윤현이 전사했다.

이어서 왜군들이 도고동으로 진출하자 석대들 근처 마을에 사는 김홍업의 사위 김응원(金應遠)은 형 김응규(金應口)와 함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한 의병책으로서 나뭇가지에 수백 개의 등불을 달아놓아 마치 수백 명의 병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왜군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퇴각할 때 그 뒤를 추격하여 격퇴시켰다.

사족 신분이었던 김홍업 일가의 창의기병은 정유재란 중에 보여준 강진 의병항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혼맥관계인 경주김씨인 사위 김응원과 형 김응규, 처조카인 해남윤씨 윤현 · 윤검 등의 활약으로 현정(縣廳)을 지켜낸것은 정유재란중 강진 향보의병이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실정은 반상(班常)을 가리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해도로 피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홍업 · 김서봉 부자는 난리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당포 적진에 뛰어들었다. 피란가고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집안의 가동(家童)들과 가까운 향인들을 모아 결성된 소수의 의병이다. 이들 부자가 전사한 날짜의 기록을 보면 강진, 해남의 왜군 세력이 가장 치성했을 때임을 알 수 있다.

이듬해인 1598년 이순신장군이 강진의 고금도로 진영을 옮겨 전함을 건조하고 병력을 모아 수군을 증강하면서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고금도는 조선 수군의 기지인 통제영이 설치되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인근 도서지역은 물론, 강진 지역의 주민들은 수군에 충원되고 물자를 징발당하는 부담과 고통이 크게 가중되었지만 이어진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완전히 격파함으로써 7년의 전란을 끝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동김씨 김홍업 · 김서봉 부자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나라와 이고장을 위해 바쳤지만, 안타깝게도 난 후 전공평가에 대해 그들의 창의순절(倡義殉節)을 아무도 품신(稟申) 해주지 못해 책록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 손자를 남겨두고 아들도 남당포 전투에서 한날 함께 전사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위 김응원은 호남절의록에 올라 각왜비(卻倭碑)를 세워 기리고 있고, 처조카인 윤현을 비롯한 많은 충신 열사들이 선무공신에 책훈되고 지역 사당에 배향되어 추모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업부자는 어디에도 의표(義表)가 없다. 마침 강진군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동화집 ‘우리동네 옛이야기 남당포를 지킨 김홍업장군’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김홍업 부자의 이름을 찾아서 불러주어야 한다.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홍업 부인 해남윤씨 묘(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남산)

김홍업은 안동인(安東人)으로 자는 경훈(景勳)이고 군기시 직장(軍器寺直長)을 지냈다. 여말 충신 수안군사(遂安郡事) 김칠양(金七陽)과 세종조 천문학자 김돈(金墩)의 후손으로 충순위(忠順衛) 김질(金磧)의 아들이다. 김서봉(金瑞鳳)은 김홍업의 아들로 자가 응시(應時)이며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을 지냈다.

<안동김씨 김홍업의 가계(家系)>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충렬공 방경 忠烈公 方慶	판서공 선 判書公 愼	충숙공 승용 忠肅公 承用	상락군 후 上洛君 厚	군사공 칠양 郡事公 七陽	부윤공 돈 府尹公 墩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부사공 계로 府使公 季老	좌랑공 석정 佐郎公 石精	충순위 정건 忠順衛 廷健	충순위 질 忠順衛 磧	직장공 홍업 直長公 興業	참봉공 서봉 參奉公 瑞鳳
안동김씨대종회 김재이(金在二) 이사, 작고하신 김이남(金二男)씨, 동원그룹 김재철(金在哲)회장 일가 등이 강진의 후손들이다.					

■ 남당포를 지킨 김홍업장군 동화책 발간

2020년 2월 19일 강진군도서관에서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향토사학자인 양광식 강진문사고전연구소장의 감수를 받아 김해동 동화작가가 직접 쓴 동화책 ‘우리 동네 옛이야기, 남당포를 지킨 김홍업 장군’을 발간했다. 강진읍과 관련된 전설과 역사, 문화에 관한 이야기

로, 임진왜란 때 강진을 지킨 ‘김홍업’ 장군’을 비롯한 6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동화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확실치는 않으나 이 동화책이 남당포 전투에서 순절한 김홍업 부자의 이름을 불러준 첫 공적 매체이지 않나 싶다. 앞으로도 관청이나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후손들이 합심하여 더욱 호명되어지기를 바라며 그간 노력해 오신 강진의 김재이 이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대중회 부총장. 안사연 회원 김태영(金泰榮)－

산행일기 2020년

1. 산행일기 2020. 4. 2(목)

강원도 철원 ‘북계산’ 산행을 하다. 분명 봄은 왔는데 침묵의 봄은 길다. 이번에 옛 직장동료 산행팀 5명이 도심을 탈출했다. 그간 코로나로 절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이른아침 7시쯤에 출발한 승용차는 9시에 철원의 북계산 입구에 도착했다. 코로나덕에(?) 황제길주하여 시간이 단축되었다. 산행준비를 마치고 9시30분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계산은 우리일행만 입산을 허락한 것이다. (등산객이 없음) 처음부터 굉장히 가파른 코스다. 하부능선의 청정지역 주변 바위틈에서 자란 티없이 곱게 핀 진달래꽃과 마주하고, 조선시대 단종의 폐위에 반대하여 낙향한 김시습이 은거하였다고 하는 매월대(梅月臺)폭포의 물보라와 낙수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상쾌하다. 인증샷을 하고 이어 노송쉼터에 올랐다. 쉼터에는 기암절벽 큰 바위들과 함께 수백년을 지내온 소나무들이 있어 우리는 바위에 걸터앉자 노송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다.



싱그러운 솔바람을 맞으며, 쉬엄쉬엄 발걸음은 정상을 향하고 삼각봉 - 헬기장 - 철쭉로를 지나 8부능선에 이르니 들숨날숨 숨결이 가빠진다. 호흡을 주관하는 폐장청소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니 오늘하루 미짚인생은 아니라 좋다. 이러는 사이 어느덧 북계산 정상에 도착했다. 출발한지 2시간 반. 강원도 철원 북계산(福桂山-1,057.2m)은 남과 북으로 대성산(1,174m)과 북주산(1,154m)이 접하고 있는 큰 산이다. 가파른 능선과 벼랑길이 많아 우리같은 70대 신중년들이 산행하기에는 만만한 산이 아니다. 정상에 오르니 광덕산(1,046m)이 한눈에 보이고, 북쪽으로 오성산(1,060m)등 북녘의 산하가 펼쳐진다. 장엄하다고 할까? 저 멀리 운무를 바라보니 신선들의 세계인 듯 더욱 신비롭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신선이 아닌가? (저쪽에서 바라보면) 코로나도 없고, 오직 순수한 대자연만이 있을 뿐이다. 1,000m이상의 고지대라서 그런지 따사로운 봄기운은 있지만 고지대에서 자라는 관목(키 작은나무)식물들이 꽃과 잎을 피기에는 아직 이른가 보다. 산악인은 계절과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 오르지 오늘에 만족한다. 점심은 하산해서 하기로 하고 배낭속에 간식으로 준비한 과일과 떡 등을 먹으면서 가는 세월을 음미했다. 언제 여기에 한번 더 오겠느냐고. 정상에 오르니 큰 산을 정복한 뿌듯한 느낌이 든다. 이럴때 사람들은 흔히 정상주를 하는데 우리는 산(산신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안했다. 하산길에는 우리의 예의에 답이라도 한 듯 8부능선에서 사삼(더덕) 횡재를 만났다. 10년산은 족히 되어 보인다. 자연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내려가 소주한잔 할 생각을 하니 내려오는 길이 한결 가벼웠다. 깊은 계곡을 내려오니 간간이 핀 노란 생강나무의 은은한 꽃향기가 우리를 반기고 수정같이 맑고 청량한 계곡의 물소리에 도시의 속진(俗塵)을 씻으니 피곤한 줄도 몰랐다. 정확히 예정대로 오후 3시에 하산. 주변에는 오래전 ‘임격정’영화 촬영지 흔적이 있는 것을 보니 북계산의 깊이를 알 것만 같다.

오는길에 백운계곡의 정갈한 삼계탕집에 들러 복계산이 우리에게 주신 더덕을 깨끗이 씻고 으깨어 소주에 섞어 삼계탕과 함께 한잔을 비우니 그윽한 더덕향이 이 풍진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였노라.

2020. 4. 3(금)

II. 산행일기 2020. 4.14(화)

충북 제천 '구학산' 산행을 하다.

구학산(九鶴山.983m)은 원주시 신림면과 제천시 백운면, 봉양읍 경계에 있는 산으로, 9마리의 학이 날아가서 아홉개의 지명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난번 강원도 철원 복계산(福桂山. 1,057.2m)에 이어, 코로나로 갑갑한 마음에서 다시 5명이 서울을 떠났다. 이번 산행은 등산이라기 보다 사실상 더덕, 달래 등 산나물캐기 산행이다. ('입산금지기간'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구학산 경은사

입구에서부터(세계기독교 박물관) 길이 없는 계곡으로 시작하여 80°경사가 있는 산등을 넘고 반대편으로 또 내려가니 마른계곡에 달래가 있어 달래를 캐고, 다시 산등으로 올라와 8부능선 임도를 걷다 다시

입구쪽 계곡으로 내려왔다.

멧돼지등 산짐승들도 길을 따라 다니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헤치고 다녀 산나물이 우리를 잡을번 했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계곡, 80°수직에 가까운 비탈에 다래나무 등 덩굴식물과 잡목들과의 긴 사투를 벌렸다. 더덕 등 약초와 나물캐기(뜯기) 고수인 리더를 따라서 움직였지만 우리에게서는 무리다.

정말 힘든 산행이었다. 산에 진달래꽃 봄기운은 완전하지만, 아직 민가보다 온도차를 느낀다. 무리한 산행은 절대 주의하여야 할 나이. 평소 생각대로 건강을 위한 산행을 한다고 했지만 웬지 그렇게만은 안된다. 우리가 70대로(신중년?) 객기를 부릴 때도 더욱 아닌데.

오늘의 산물은 달래뿐 소득이 없다. 달래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잎과 땅속의 흰비늘줄기(씨알)를 캐는 재미도 솔솔하다. 계곡의 주변 돌틈에 많이 자라고 있어(나는 반에 반은 씨알이 끊어졌지만) 수확은 모두들 그런대로.(호미보다 작은 곡괭이가 필요) 어서 집에 가 내손으로 처음 캔 달래를 된장찌개에 넣어 봄향기 달래향을 맡고 싶다.

오는길에 충주 양성면에 유명한 가든(본가원 가든)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김에 여기서 점심 겸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시간은 오후 4시경. 가든인근 농협지정점에서 별도로 산 한우육회와, 하산할 때 용케도 임도변 자락에서 1뿌리 캔 더덕으로(구학산도 큰산답게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 건배주를 만들어 건강과 안전산행을 위하여 건배를 했다. 우리인생에서 이런날이 몇번 있겠는가? 동감하면서 오늘 힘든 산행의 회포를 풀었다. 먹기는 잘 먹었는데 먹고보니 오늘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오늘은 운전자에게 운행수당과 기름값도 보전해 주지 못한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2020. 4. 21(화)

- 안동김씨제학공파수도권총회 회장 김재만 -

▣ 영산홍 2 ▣

詩/大麓 相根

봄 저물고
신록의 계절 오월
영산홍 핀다.

붉은 색 꽃잎 펼쳐
자태 화려함은 눈이 부시고

속눈썹 꽃술
뽐아보고 싶지만
바람에 흔들려 잡을 길 없다

코로나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잔인한 세상사

영산홍 붉은세상
불타고 있다.

만발한 저 꽃송이
꽃잎 떨어져 바람타고 사라지면

영산홍
꽃시절도 잊혀지겠지



족보에 기록된 묘(墓)의 방향
패철(佩鐵)을 이용하여 24방위로 표현한다

- 자좌(子坐) : 머리는 정북, 발은 정남을 향한 상태
- 계좌(癸坐) : 머리는 북북북동, 발은 남남남서를 향한 상태
- 축좌(丑坐) : 머리는 북북동, 발은 남남서를 향한 상태
- 간좌(艮坐) : 머리는 북동, 발은 남서를 향한 상태
- 인좌(寅坐) : 머리는 북동동, 발은 남서서를 향한 상태
- 갑좌(甲坐) : 머리는 북동동동, 발은 남서서서를 향한 상태
- 묘좌(卯坐) : 머리는 정동, 발은 정서를 향한 상태
- 을좌(乙坐) : 머리는 남동동동, 발은 북서서서를 향한 상태
- 진좌(辰坐) : 머리는 남동동, 발은 북서서를 향한 상태
- 손좌(巽坐) : 머리는 남동, 발은 북서를 향한 상태
- 사좌(巳坐) : 머리는 남남동, 발은 북북서를 향한 상태
- 병좌(丙坐) : 머리는 남남남동, 발은 북북북서를 향한 상태
- 오좌(午坐) : 머리는 정남, 발은 정북을 향한 상태
- 정좌(丁坐) : 머리는 남남남서, 발은 북북북동을 향한 상태
- 미좌(未坐) : 머리는 남남서, 발은 북북동을 향한 상태
- 곤좌(坤坐) : 머리는 남서, 발은 북동을 향한 상태
- 신좌(申坐) : 머리는 남서서, 발은 북동동을 향한 상태
- 경좌(庚坐) : 머리는 남서서서, 발은 북동동동을 향한 상태
- 유좌(酉坐) : 머리는 정서, 발은 정동을 향한 상태
- 신좌(辛坐) : 머리는 북서서서, 발은 남동동동을 향한 상태
- 술좌(戌坐) : 머리는 북서서, 발은 남동동을 향한 상태
- 건좌(乾坐) : 머리는 북서, 발은 남동을 향한 상태
- 해좌(亥坐) : 머리는 북북서, 발은 남남동을 향한 상태
- 임좌(壬坐) : 머리는 북북북서, 발은 남남남동을 향한 상태

‘연기대첩 승리의 주역’ 『김흔 장군』 이야기 발간



세종문화원에서는 연기대첩 승리의 주역, 김흔(金忻)장군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삽화를 넣어 동화의 형태로 출간하였다. 연기대첩은 귀주대첩과 함께 우리나라 7대 대첩 가운데 하나로, 고려사에 따르면 1291년(충렬왕 16년) 5월 몽고 합단적(合丹賊)이 쳐들어오자 충렬왕이 강화도로 피난하는 절대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원주와 청주를 거쳐 연기현까지 쳐들어온 적을 김흔(金忻), 인후(印侯), 한희유(韓希愈) 세 장군이 연기현 정좌산(正左山)에서 크게 토벌하여 죽은 적의 시체가 금강까지 30여리에 이어졌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원수산(元帥山) 항서바위에서 항복을 받은 역사적 사건이다.

안동김씨 전서공파종회 김흥식(金興植)회장과 종친들의 공력으로 세종문화원에서 발간하게 된 ‘김흔장군 이야기’ 책자의 앞장에는 김흔장군의 영정과 부친이신 충렬공 김방경 증시조님의 영정을 나란히 신고 뒷장에는 ‘연기대첩비’와 ‘김흔장군연기대첩사적비’ 그리고 ‘학당김휴유허비’의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김세인 작가는 책 말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책은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나라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김흔장군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했다. 김흔장군의 존영과 삽화는 박은희 작가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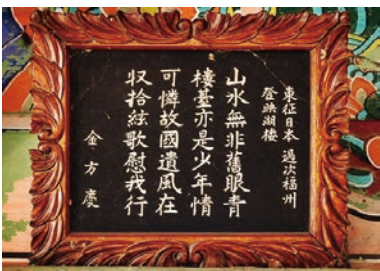
공주대학교 이해준교수에 의하면 “〈연기대첩〉은 고려에 침입한 합단적으로 하여금 다시는 전세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섬멸하여 일대 국난을 극복한 역사적 전투였으며 대첩이었다. 만약 연기전투에서 합단적을 궤멸시키지 못하였다면 가깝게는 당시 충청도의 정치, 행정중심지인 공주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나아가 충청도 내륙은 물론 전라도·경상도 지역까지도 그들의 말발굽 아래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중요한 ‘연기대첩’은 후대의 역사기록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대승첩을 기념할 어떠한 유적도 연기 땅에는 남아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700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숭고한 연기대첩의 사실마저 올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고, 다만 정좌산 부근의 창고개와 전승골, 군량골이라든가 원수산의 장군바위와 황새바위 등의 지명과 구전만이 당시 외적을 맞아 의롭게 싸웠던 고려 김흔 장군의 용맹과 충절 흔적을 아스라하게 전해줄 따름이다.” 라고 하였다.



충렬공 김방경 · 김흔 부자 - 영호루(映湖樓) 시판(詩板)

영호루에 올라(登映湖樓) - 김방경(金方慶)

山水無非舊眼青 산수무비구안청 산수는 모두 예대로 푸르르고
樓臺亦是少年情 누대역시소년정 누대 또한 소년시절의 정정일세
可憐故國遺風在 가련고국유풍재 어여빠라, 고향에는 옛 풍습 남아 있어
收拾絃歌慰我行 수습현가위아행 풍악을 올리면서 나의 길을 위로하네.



충렬공(휘 방경)은 1281년(辛巳再征)에 두 번째 일본정벌 후 개경으로 환도하는 길에 고향 안동 영호루에 올라 어릴 적 정경을 떠올리며 지은 시이다.

영호루(映湖樓) - 김흔(金忻)

十載前游入夢清 십재전유입몽청 10년 전 놀던 일 꿈에도 선명터니
重來物色慰人情 중래물색위인정 다시 오매 풍경이 내 맘을 위로하네.
壁間奉繼嚴君筆 벽한봉계엄군필 벽에 걸린 아버님 글에 이어 쓰노니
堪咤愚兒萬戶行 감타우아만호행 어리석은 아들 만호 걸음 부끄럽네.



이 시는 김흔(金忻)이 1289년 39세에 우군만호(右軍萬戶)로서 합단(哈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용양행성으로 나갈 때, 안동 영호루에 올라서 벽에 걸린 아버지 의 시를 차운한 ‘영호루’ 이다. 동문선에 부자의 시가 소개 되어 있

며, 영호루에도 시판이 나란히 게판되어 있다.

■ 김흔(金忻) 1251년(고종 38) ~ 1309년(충선왕 1)

아버지는 명장이며 명재상이었던 김방경(金方慶)이다. 음서(蔭紱)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을 거쳐 장군이 되었다. 1272년(원종 13) 아버지를 따라 탐라에서 삼별초를 토벌하고 대장군이 된 뒤, 곧 사재경(司宰卿)에 올랐다. 1274년 일본 원정 때,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참가하였고, 진주 목사를 지냈다. 1278년 아버지가 무고를 입어 대청도(大靑島)로 유배될 때, 백령도에 유배되었다가 충렬왕의 변호로 풀려났으며, 대방공(帶方公) 왕징(王溱)이 원나라에 갈 때, 원부(元傅)의 아들 원정(元貞) 등 의관(衣官) 자제 25인과 함께 돌루계(禿魯花: 볼모)로 다녀왔다.

1289년 만호(萬戶)로서 조정군(助征軍)을 이끌고 요양행성(遼陽行省)에 갔으며, 동계(東界) 방수군(防戍軍)을 조사하고 합단(合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290년(충렬왕 16) 합단이 쳐들어오자, 충청도 연기(燕岐) 부근에서 격파한 공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가 되고, 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에서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가 되었다.

승려 일영(日英)이 한희유(韓希愈)가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하자, 인후(印侯)와 함께 이를 제거하기 위해 원나라에 갔다. 그러나 마침 원나라에 갔던 충렬왕이 무고임을 밝혀 한희유가 무사히 귀국해 중용되자 귀국하지 않았다. 한희유가 죽자 연경에서 7년 만에 돌아와, 찬성사 자의도 첨의사사삼중대광(贊成事咨議都僉議司事 三重大匡)이 되었다. 아버지를 이어 상락공(上洛公)에 습봉(襲封)되었다. 성품이 활달하면서도 인자하였다고 한다.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정승친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ddundol@hanmail.net